

사진으로 보는 33년의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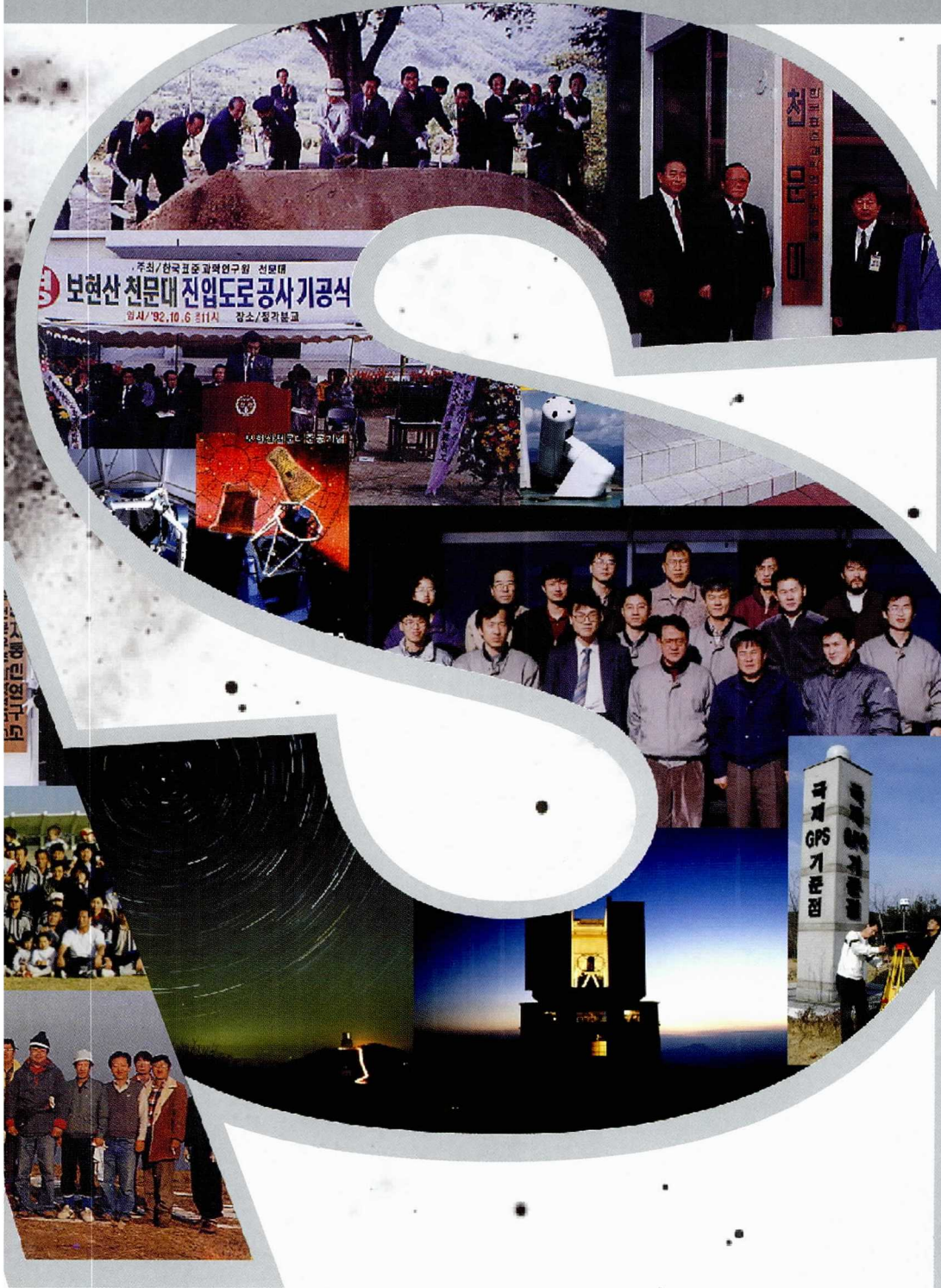


■ 국립천문대 1974.09~1986.03

1974년 9월 13일, 관상감이 폐지된 지 80년 만에 국립천문대가 탄생하면서 단절된 우리 천문학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 국립천문대의 시작과 함께 설치되어 활용된 61cm 광학망원경의 역사는 한국 광학천문학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 천문우주과학연구소 1986.03~1991.10

국립천문대의 직제가 폐지되고 정부출연연구소 체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져, 한국전자통신연구소 부설 천문우주과학연구소로 다시 태어났다. 소장으로는 김두환 박사가 추대되었고, 발족당시 52명의 인원에서 1991년에는 직원이 89명까지 증가하였다. 이 시기에는 전파천문 분야에 모든 역량이 집중 투자되어, 14m 전파망원경을 적극 활용하고 관측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온 심혈을 기울였다.



Design by BB

■ 천문대 1991.10~1999.05

〈과학기술계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기능 재정립 및 운영 효율화 방안〉은 적정 규모에 이르지 못하는 연구소들은 관련 있는 커다란 연구소에 흡수시킨다는 방침을 포함하고 있어 천문우주과학연구소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직속기관으로 전락하였다가, 불행 중 다행으로 1993년 5월 15일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직속기관에서 부설기관으로 승격하였다. 이 시기에는 보현산천문대가 건설되면서 광학천문학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게 되었으며, GPS 분야의 노력이 인정받기 시작했다.

■ 한국천문연구원 1999.05~현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1999년 1월 29일 공포되어 기초기술연구회가 3월 15일 설립되면서, 연구회 산하 기관의 하나로 당시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부설 천문대가 1999년 5월 21일 독립법인 “한국천문연구원” 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 초대 원장으로는 이우백 박사가 추대되었고, 발족 당시 직원은 총 71명이었다. 한국천문연구원은 과학기술위성 1호의 주탑재체 개발을 통해, 현재는 3호의 주탑재체 개발에 주력 중이며, 우주환경감시 연구와 우주측지 연구 등 우주와 관련한 연구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국제적 대형망원경(GMT) 개발 참여와 KVN 건설을 통해 광학과 전파 연구에도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